

세계기도정보

- [튀르키예] 튀르키예 성서공회,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 긴급 성서 후원 요청
- [이라크] 이라크전 20년 트라우마 시달리는 청년들... 유년기 빼앗겼다
- [나이지리아] SNS서 신앙표현했다고 화형... 나이지리아 북부, 기독교 박해 사상 최악
- [중남미] 폭우 이어 지진까지... 에콰도르, 페루 '악몽의 3월'
- [아시아] 카지노 선이었던 배, 복음 싣고 동아시아 누빈다
- [인도] 지속된 핍박 속에 국가 금식일을 선포한 인도교회들
- [한국] 성전환수술 안 해도 성별 정정 가능... '사회적 혼란' 야기
- [미국] 진짜 약인 줄 알고... 펜타닐 알약 복용 10대 사망 속출
- [모잠비크] 모잠비크에 수감중이던 선교사 석방됐지만, 남은 절차 위한 기도 필요
- [프랑스] 과열되는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 경찰, 310명 체포
- [뉴질랜드] 뉴질랜드, 소수민족 학생 5명 중 1명은 학교서 인종차별 경험
- [이란] 이란, 위험한 새해맞이... 불꽃축제에 27명 사망, 4천여 명 부상
-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섬기는 교인들,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희망
- [아프가니스탄] 아프간 기독교인, 끔찍한 탈레반 박해 직면... 이들 도울 새로운 전략 필요
- [브라질] 브라질 19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방화, 총격, 약탈



- ▶파 송 :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후 원 :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개척 교회 :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정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기 관 :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2023.03
멕시코에서 온 편지



담임목사 김성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하나님께 감사.....

한국에 계신 91세 되신 아버님의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 소식에 우리 부부가 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길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불효자로 만들어 주지 않길 간구했다. 감사하게 나의 소망을 들어주셨다. 더 나아가 병원에서의 조치들로 오히려 아버님은 더 건강해지셨다. 아직도 여전히 굳이 나와 격리된 공간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감사할 뿐이다.

새해 벽두 나에게 주신 말씀(“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을 생각한다.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는 지금 사용하던 공간을 1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사용하던 건물을 팔려 했던 집 주인이 경기 악화로 팔리지 않자, 우리에게 1년 더 있다가 나가라고 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주인의 이 이야기에 호세 목사가 1년 안에 우리가 언제든지 다른 공간을 찾으면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받았다. 호세 목사와 성도들이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빈터만 있다면 주중 보육시설 건물처럼 온 성도들이 함께 시간을 내어 직접 예배당 건물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의 문제다. ”우짜노~ 예배당”이 건물이 아닌 사명이 공간이길 기도하며 2023년 한해에 새 예배 처소를 위해 빈 공간을 찾아보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궁금하다.

2월 18일 토요일, 아직 시차 적응 중이다. 새벽에 누군가 선교관 초인종을 누른다. 누군가 꽃바구니를 배달해 왔다. 그리고 적혀있는 글: “결혼기념일 축하해- 사랑하는 아들”. 감사하다. 나도 이제까지 아내에게 결혼기념일에 꽃다발을 한 번도 선물해 보지 못했는데, 큰일이다. “너거가 이렇게 하면, 내년에 나는 우짜노?”라고 말했지만 감사하다.

친구가 있어 감사!

2월 20일 월요일, 축전에서 형님 목사님 내외가 우리 부부를 보기 위해 부산에 내려오셨다. 목회 일정으로 바쁠 텐데, 아직도 ‘콜록콜록’하는 내가 걱정되었나 보다. 나에게 말한다: “재작년 멕시코로 윤 선교사 떠날 때 다시 볼 수 있을까? 마음이 짠~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보니 좋네”, “형, 나도 내가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없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른 아침 왔다 저녁에 다시 기차를 타고 떠나는 형님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 “형, 이렇게 한 꿈을 같이 꿀 수 있어 너무 좋네, 우리 오래 같이 건강하게 함께 달려가요.”, “나도 그래”

2월 13일 월요일, 젊은 시절 같이 같은 교회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몇몇 친구들이 번개 모임을 했다. 호주, 멕시코, 거제도 그리고 부산에서 삶의 터전을 가지며,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선교사로, 의사로 그리고 직장인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다른 모양으로 믿음 안에 살아간다. 호주에서 온 친구는 이십 년 만에 본다. 모임에는 목사라는 호칭도, 선교사라는 호칭도 장로라는 호칭도 집사라는 호칭도 없다. 그냥 각자의 이름을 부를 뿐이다. 하

나님 앞에 만나는 모든 성도가 이리하겠다고 생각했다. 허물없이 만나 웃고 이야기하고 같이 각자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순종은 나의 몫, 일은 하나님의~

2022년 12월 20일 한 통의 카톡으로 시작된 쿠바를 위한 의료품 전달 프로젝트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이다. 내가 한 것은 순종이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직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 쿠바 지역 리더들은 그 지역에 필요한 의약품 리스트를 씬 없이 나에게 보내어 온다. 비타민, 항생제, 진통제를 비롯해 당뇨약, 혈압약, 항암제까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의약품이다. 수도 하바나의 हे수 목사는 약품이 필요한 성도들의 사진과 그들이 필요한 의약품명을 보내어 왔다.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상상할 수도 없는 쿠바의 의료 상황을 본다. 그러나 이들의 많은 요구에 나는 선뜻 “예, 제가 약품을 구해 드리겠습니다”고 말할 수 없다. 쿠바 지체들은 처방전이 없으면 항생제나 당뇨약, 혈압약, 항암약등을 우리가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뿐이다.

3월 7일 화요일, 미국 뉴욕의 전구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선교사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약품이 모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까를로스 목사와 의사 라우라 자매가 동료 의사들로부터 그리고 의료시설로부터 이민 가방 2개 분량의 약을 헌물 받았다고 한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나는 정작 병중에 계신 아버님 일로 이 일에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1천 명이 4일을 먹을 수 있는 항생제와 감기약이 헌물로 들어왔다. 순종은 나의 몫이지만,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제목>

1. 4월 말~5월 초 있을 1차 쿠바 의료품 전달을 위해 필요한 의료품이 잘 모여질 수 있도록.
2. 모여진 의료품이 분쟁없이 2백여 교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3. 이 일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